



원조 닭갈비에 친절함이 더하면...?

## 춘천 명동 복천담갈비



조해인 기자

오랜만에 주말에 나들이를 나갔다. 갑자기 몰아친 봄비에 꽃샘추위까지 기승을 부려 조금은 쌀쌀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만은 완전한 봄이다. 청평 쪽으로 가려던 나들이 길은 어느덧 강촌으로 향했다가 종착지는 춘천으로 바뀌었다. 춘천에 다다를 즈음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 춘천 명물인 명동 닭갈비를 찾았다.



번잡한 시내 골목길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명동시장 골목을 지나 화려한 옷가게를 지나니, 조금 허름하다 싶은 골목길이 나온다. 종로 피맛골처럼 다다다닥 붙은 2~3층 건물 사이로 길다란 간판이 즐비하고, 그 사이로 좁은 골목길을 따라 양측이 모두 닭갈비집이다. 정오가 지났는데 아직 손님을 받지 못한 가게부터 벌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까지. 이중 원조집으로 알려진 한 닭갈비집을 찾았다.

### 불친절한 원조집

넓은 닭갈비집 안은 몇 테이블을 제외하고는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빈 테이블이 치워지지 않을 정도로 분주했다. 그럼에도 모두들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 대 베네수엘라전을 보느라 넋이 빠진 모습이다.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5분이 지나도록 이전 손님이 먹던 음식과 그릇들을 치우지 않아, 수차례 직원을 불렀으나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 야구를 보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주문조차 받으러 오지 않는 식당이 이상하고 또 화가 나 가게를 나와 다른 집으로 향했다. 그 집 말고도 많은 닭갈비집이 있었고, 분명 더 친절하리라 생각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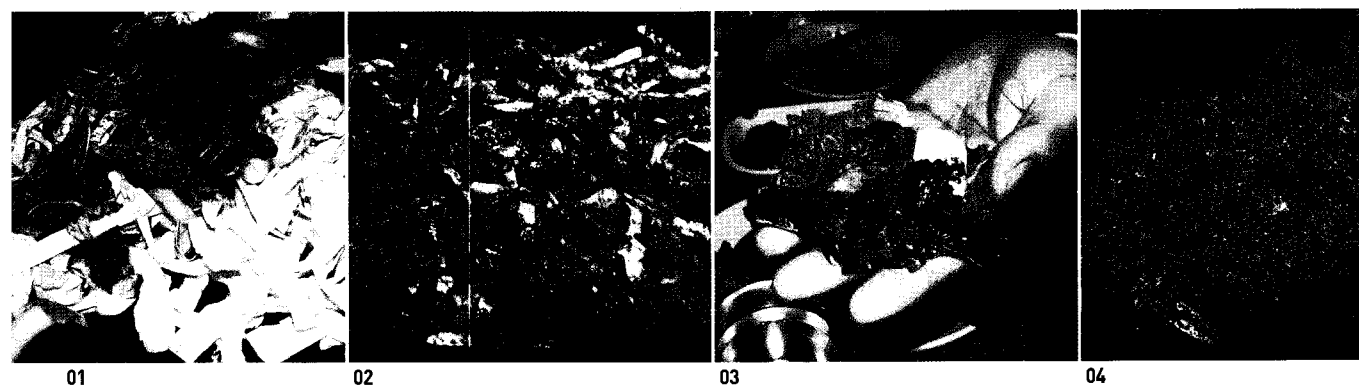
깔끔하고 번드르르한 식당이 '저렇게 손님을 놓치는구나' 싶어 아쉽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 춘천 민심에 조금 실망하던 차였다.

### 닭갈비 원조집은 어디에도 있다

그러다가 한 닭갈비집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곳곳에 역사를 자랑하는 많은 닭갈비집. 어디가 원조고, 어디가 원조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

북천닭갈비라는 음식점에 들어서니 손님은 가득 차지 않았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깔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친절할 어머니님 같은 분들이

- 01. 양념된 닭갈비
- 02. 완성된 닭갈비
- 03. 상추쌈에 싸먹으면 별미다.
- 04. 1인분 볶음밥 양이 예시롭지 않다.



01

02

03

04

주문을 받고 닭갈비를 볶는 내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마음이 많이 풀렸다. 마치 일품 한식집에서 손님을 맞는 직원들 같았다. 그래서일까? 야구 이야기와 닭갈비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복천닭갈비 맛은 필자가 먹어본 닭갈비 중 최고였다.

춘천 닭갈비가 유명하다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 춘천에 와서 먹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빼없는 닭갈비 2인분을 주문했는데 나온 양을 보니, 족히 3인분은 돼 보였다. 푸짐한 양배추와 양념닭고기 외에도 떡, 우동국수, 고구마가 추가되어 기존에 서울에서 먹던 닭갈비와는 양적 측면에서도 만족 이상이다.

### 닭갈비와 양배추 맛의 조화


그리고 처음 닭갈비가 나왔을땐 양념이 굉장히 매워 보였는데 먹어보니 하나도 맵지 않았고, 강한 양념맛 보다는 닭고기와 양배추맛이 조화를 이뤄 부드러운 맛을 낸다. 테이블이 간간히 붙어 있는 탓에 옆 자리에 일본관광객이 앉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일본인도 쉽게 먹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소식하는 일본인답게 닭갈비 2인분의 상당량을 남겨 안타깝기도 했다.

물론 우리 일행은 주린 배, 왕성한 식욕으로 닭갈비 2인분을 조금 남긴 채 다 먹을 수 있었다. 배가 불렀지만 맛도 볼 겸, 사진도 찍을 겸 볶음밥 1인분을 주문했는데, 세상에! 1인분이 1인분이 아니다.

필자와 친구는 밥 1인분을 볶아두고 어이가 없었다. 1인분이 이렇게 많을 수가... 아쉽지만 밥을 남기고 닭갈비집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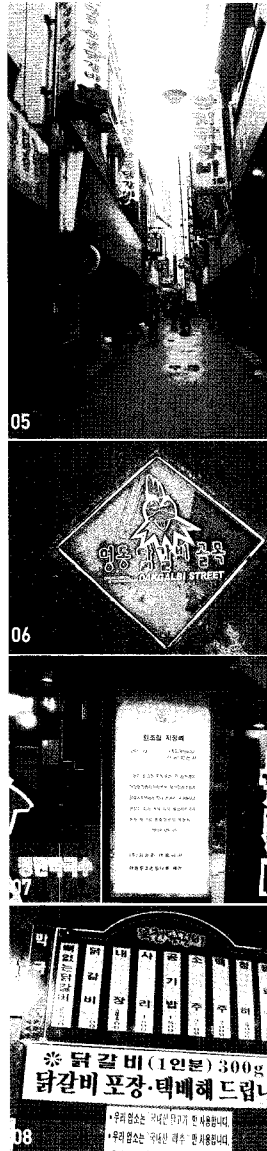
### 오른 가격만큼 양도 푸짐한 닭갈비

필자가 10년 전쯤 닭갈비를 4,500원에 사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새 오르고 또 올라 이제는 8천원이 됐다. 비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다른 음식 가격도 죄다 올랐으니 곱게 받아들이려나.

하지만 이렇게 푸짐한 양의 닭갈비에 공기밥 2인분 이상의 양을 1인분 가격인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니 계산대 앞에서는 2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 그리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다. 

'복(福)이 샘(泉)처럼 솟는다'는 뜻의 복천 닭갈비

춘천 명동, (033)254-0891



- 05. 닭갈비골목
- 06. 닭갈비골목을 알리는 현판
- 07. 원조집이라는 지정서
- 08. 메뉴. '국내산 닭고기'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